불자기업탐방-불제대원기업

사찰 전선 위험 무방비에 발심

오대권 대표 1989년 창사… 특허 30여 건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뒷줄 왼쪽 세 번째)와 임직원들이 손수 만든 연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모~ 읓~"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월 27일, 불제대원기업(대표 오대권) 앞마당에서는 바쁜 중에도 잠시 일손을 놓은 직원들의 윷놀이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내일이 대보름이잖습니까. 부처님오신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신명나는 윷놀이로 직원 화합을 다지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989년 경기 김포에서 문을 연 불제대원기업은 연등 · 인등 · 불제단 제작 등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공장 곳곳에는 튼튼하고 예쁜 연등을 담은 연등박스가 가득했고, 공장 기계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의 불제대원기업이 있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오대권 대표는 20여 년 전 전기 안전장구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 하던 중 부도를 맞았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분함에 마음 둘 곳 없었던 오 대표는 자주 산에 올랐고, 그 때마다 법당을 찾았다. 어릴 때부터 절을 놀이터로 여겼던 오 대표는 산에 가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절로 향했다.

오 대표가 어느 날 법당에 앉아 눈을 감았다 뜨니 천장에 연결된 전선이 금방이라도 타들어 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고 한다.

오대권 대표는 바로 사찰 주지스님께 "이 전선은 너무 얇아서 전구하고 전압이 맞지 않아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동안 말짱했는데…, 괜한 소리 말아요"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 뉴스를 통해 그 사찰의 화재 소식을 들었다.

오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특히나 사찰에는 보물도 많은데 전선이 불연제로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대권 대표는 그때부터 법당에 쓸 전선 개발에 몰두했다. 그리고 '불제대원기업'을 세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도 위기에서 재기하는데 큰 힘을 줬던 불교에 도움이 되자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는 1990년 특허 1호를 낸 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30여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오 대표는 사업 상 법당 시공 등을 하며 불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오대권 대표는 "절에 가면 할머니 엄마 따라온 아이들이 심심하다며 집에 가자고 한다. 불교계는 불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대표의 소원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불제대원기업은 연등 및 법당 시공 후 끝가지 보수 등을 책임진다.

신명나는 윷장단을 뒤로 오 대표와 임직원들은 "언제든 믿고 맡겨 달라"며 활짝 웃었다. (031)986-0277

박선주 기자

수행포교 반세기, 이제 시작

경북대 불교학생회 50주년… 한마음장학회 출범

경불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박경희 동문회장이 최근 불교동아리 활동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동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세기의 구도열정 수행포교 원력으로'를 주제로 대법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의 원을 세웠다.

경북대 불교학생회(동문회장 박경희, 이하 경불회)는 2월 2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안동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 대구 정혜사 주지 원당 스님,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회장, 동문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법어에서 "경불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성취하시길 바라며 대불련 활동이 1970~1980년대 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희 동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학생 불자들의 구도열정과 스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질적 · 양적으로 발전했던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이 최근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문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문들이 출연한 한마음장학회가 출범했다. 한마음장학회는 동문이 모금한 5000여 만원을 동문재학생과 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자랑스런 경불인상에 김우영 동문(62학번,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을, 특별상에 은장권 대불련 대구 · 경북동문회 사무국장을 선정했다.

한편, 경불회는 1958년 대구 대안사에서 대학생 불자의 모임이 태동된 후 1961년 연합회 형식으로 정식법회가 이뤄지면서 창립됐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대구 · 경북지역 대학생불자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을 이끌어 왔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전 영령 위로 도선사·군종교구

도선사(주지 혜자)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3월 3일 최전방 28사단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신도 및 군장병 800여명은 이날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탄강에서 방생을 통해 당시의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군부대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방생법회가 진행된 28사단 무적 태풍부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의 법당을 보유한 최전방 군포교의 산실로 일선부대 중 가장 많은 불자장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사는 그동안 28사단을 비롯해 최전방부대에 법당 불사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혜자 스님은 "경제난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포교를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젊은 불자 장병들을 한국불교의 새로운 등불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봉축위 결성… 봉축 준비 착착

대구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현관 스님)는 3월 2일 보현사 대구불교대학에서 결성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현관 스님은 "올해 봉축행사 장소가 두류공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지역 불교계의 종단을 초월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대구 종무원장 청운 스님 등 7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대구 봉축위원회는 4월 16일 봉축탑 점등식을 열고, 5월 15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수사, 청수유치원 개원

대구 청수사는 2월 26일 청수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대구 청수사(주지 종열)는 2월 26일 부설 청수 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렬 수성구청장, 정순천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성구 지역의 불교 유치원 탄생을 축하했다.

청수 유치원은 6~7세반 4학급 120여 명을 정원으로 3월부터 첫 학기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청수사는 10여년 전부터 청수 어린이집을 개원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아교육을 펼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100자 뉴스

조계종·태고종 10일 봉원사 소유권 확정 협약

서울 신촌 봉원사 소유권을 확정하는 조계종 · 태고종 간 협약식이 3월 10일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토지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진흥원특위 7일 진흥원 관련 조사보고서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가 진흥원과 관련된 모든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3월 7일 최종 확정했다.

진흥원특위는 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및 향후 활동 지속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로 인해 보고서 작성이 늦어 결정을 미뤘다. 진흥원특위는 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고서 최종 확정을 했으며 8일 임시종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흥원 설립취지 및 10 · 27법난과 진흥원 관계에 대한 각종 증언 요약본 등 자료 등이 담겼다.

연꽃마을 연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키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연천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체로 선정돼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복지시설이 전무했던 연천군은 45억 여 원을 들여 연면적 2433㎡(약 605평)에 지상3층 규모의 복지관을 2010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각현 스님은 "연천군노인복지관을 농촌지역 최고의 선도적인 노인복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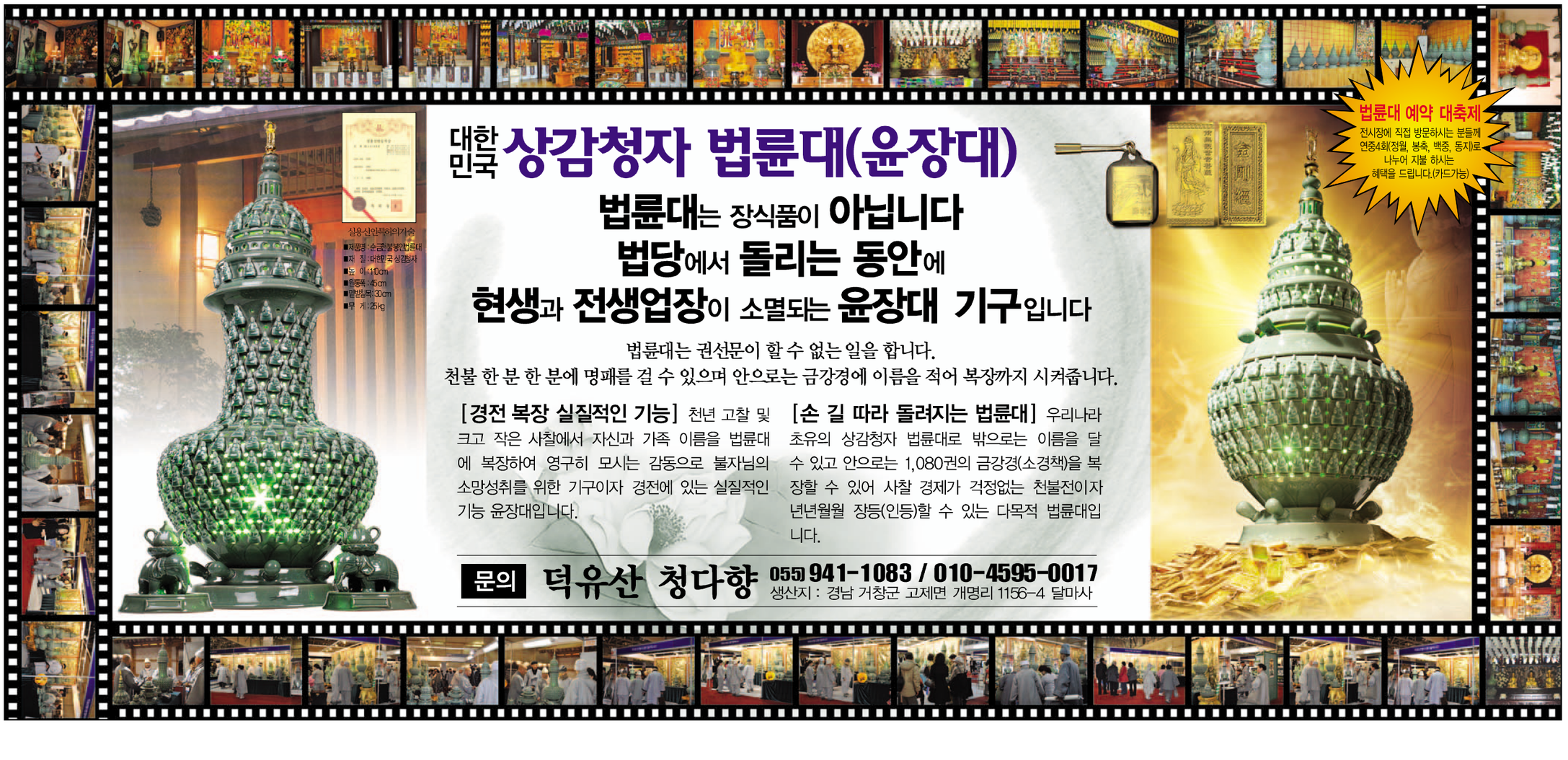
대불청 우리역사바로알기불교운동본부 출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3월 1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 90주년을 맞아 '우리역사바로알기 불교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리역사바로알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형남)는 1000여 곳 친일인명사전보급운동, 심우장 성역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고문에는 지홍 스님, 수경 스님, 정념 스님, 배영진씨가 위촉됐다.

한편, 대불청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제31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 · 시조 · 산문분야에서 총 17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 · 시조부분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정민 학생, 산문부분에 군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황미지 학생이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조계종 제1회 불교미디어아카데미 개최

조계종 총무원이 미디어 변화에 발맞춰 불교언론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원담)은 4월 2~3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교구본사 홍보담당자 및 불교언론인을 대상으로 제1회 불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미디어 전문가 특강 및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접수는 3월 25일까지로 선착순 40명에 한해 진행된다. 참가비 3만원. (02)2011-1743